

“조규성, 셀틱과 협상 중...레인저스도 주시”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 스코틀랜드 두 명문 관심 보도
마인츠 단장 “조규성 좋아하지만...높은 이적료는 부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깜짝 스타’가 된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25·전북)이 스코틀랜드 두 명문의 관심을 모두 받고 있다.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11일(한국시간) “조규성 측이 셀틱과 이적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셀틱의 라이벌인)레인저스도 조규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셀틱은 조규성 영입을 위해 전북 구단에 이적료 300만 파운드(약 45억 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적성의 소속팀인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가 조규성에 이적료 250만 파운드를 제안했으나 셀틱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마인츠의 크리스티안 하이델 단장은 이날 독일 키커를 통해 “조규성을 좋아하지만, 이적료가 크게 올라간다면 우리 관심을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스트라이커 조규성을 두고 셀틱의 스코틀랜드 라이벌인 레인저스도 관심을 보였다. 스카이스포츠는 “레인저스도 조규성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셀틱과 달리 전북에 공식적인 제안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 K리그1 득점왕(17골)인 조규성은 카타르월드컵에 나서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헤더로 멀티골을 터뜨려 영웅이 됐다. 이후 브라질과 16강전까지 선발로 나서며 벤투호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했다. 월드컵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조규성은 곧장 해외 구단들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았다. 셀틱, 마인츠 외에도 미국프로축구리그



(ML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페넬트바로스(헝가리) 등이 조규성에 관심을 보인다. 다만 이 중에서 셀틱이 조규성 영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조규성은 전북과 2025년까지 3년 계약이

남았다. 전북은 기본적으로 이적하려는 선수를 붙잡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조규성의 첫 해외 진출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뉴시스



안덕수 트레이너. (캡처=안덕수 트레이너 인스타그램)

‘2701호의 비밀’ 한 달 만에 침묵 깬 축구협회...배경은

대한축구협회가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불거진 이른바 ‘2701호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강호 포르투갈을 2-1로 누르고 12년 만에 16강에 오른 뒤 축제 분위기로 들뜬 지난달 7일 손흥민(토트넘)의 전담 트레이너인 안덕수 씨가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이었다. 안 트레이너는 “2701호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며 “이번 일로 인해 반성하고 개선해야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축구협회의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폭로했다. 이후 안 트레이너는 기자들에게 추가 폭로를 예고한 뒤 자취를 감췄다. 이에 당시 협회는 안 씨의 이후 행보를 보고 관련된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약 한 달여가 지난 10일 협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안 트레이너와 관련된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카타르월드컵 기간 선수단과 협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협회가 침묵을 깨고 뒤늦게 해명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까지 이어진 안 트레이너 관련 보도 때문이다. 최근 일부 매체에선 일부 대표팀 선수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협회가 선수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재차 폭로했다. 이에 협회는 “뚜렷한 사유,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SNS에 쏟아낸 개인의 감정에 정면 대응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선수단 노고를 격려하는 경사스러운 분위기에서 선불리 언급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안 트레이너를 협회에 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원칙’이었음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지난 2021년 11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 협회 의무 스태프에 안 트레이너가 합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정식 절차를 통해 채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안 트레이너가 지원하지 않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안 트레이너가 손흥민의 전담 트레이너 자격으로 카타르에 건너왔고, 협회는 선수들의 선택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대회 기간 갈등은 계속됐다. 우루과이와 1차전을 이틀 앞두고 일부 선수들은 협회의 의무팀장의 업무 배제와 귀국을 요청했다. 의무팀장이 안 트레이너의 대표팀 합류를 반대하는 핵심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몇몇 선수들은 대표팀 내 무자격증 트레이너를 언급하며 안 트레이너도 정식 스태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을 이어갔다. 하지만 협회는 “아무리 선수들이 원한다 해도 모질고 응시하지 않은 무자격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며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또 무자격 트레이너에 대해선 “2년 계약 당시 2020년 자격증을 요구하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지 않던 터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안 트레이너가 선수들과 협회 사이에 혼선을 일으켰다는 점도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 의료진이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지정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내린 진단을 안 트레이너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수들과 의무진 사이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협회도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려는 듯 반성하는 자세를 함께 내비쳤다. 협회는 “선수들이 오래 요청한 사안이라면 귀 기울여 듣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최근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 몸 상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추세라 이런 경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공식 의무 스태프와 개인 트레이너 간 협력 관계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가 한 달 만에 공식 입장을 낸 가운데 안 트레이너 측과 일부 선수들이 다른 입장을 밝히지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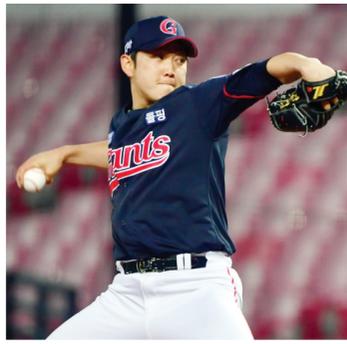
KIA, 김건국·김승현·김용완 영입... “팀스 강화 위해”

“김건국·김승현, 중간계투 활용 가능”

KIA 타이거즈가 방출된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진을 강화했다. KIA는 투수 김건국(35), 김승현(31)과 내야수 김용완(20)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2006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건국은 NC 다이노스, KT 위즈, 롯데 자이언츠를 거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2021시즌 뒤 롯데에서 방출된 김건국은 새 팀을 찾지

못해 2022시즌을 무적 신분으로 보냈다. 김건국은 1군 무대에서는 88경기에 등판, 7승 5패 4홀드 평균자책점 4.57의 성적을 냈다. 김승현은 201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10순위로 삼성 라이온즈 지명을 받은 유망주다. 그러나 좀처럼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지난해까지 1군 무대에서 2승 8패 4홀드 평균자책점 5.51에 그쳤다. 2022시즌 1군에서 6경기 등판에 그친 김승현은 결국 시즌 뒤 방출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롯데에 입단한 김용완은 아직 1군 경기에서 뛰 적이 없다. KIA는 “김건국과 김승현은 중간계투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며 팀스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 김용완은 젊고 발이 빠른 내야 유틸리티 자원으로 향후 활용 폭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현은 지난 3일부터 KIA 2군 구장인 합평 챌린저스필드에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김건국은 이날 16일, 김용완은 다음달 1일부터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탁구 신유빈, 더반 단식 출전권도 확보...전 종목 도전



신유빈이 1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WTT) 아시아예선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오라완 파라남(태국)과 경기하고 있다. 신유빈은 파라남을 세트 스코어 4-3(9-11 11-7 7-11 11-3 12-10 9-11 11-7)으로 꺾고 여자복식, 혼합 복식에 이어 WTT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2023 더반 세계탁구선수권 예선 중 신유빈, 여자복식·혼합복식...단식까지 장우진 등 남자 단식 출전권 4장 확보

한국 여자탁구 희망 신유빈(19)이 2023 더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파이널스 여자단식 출전권을 획득했다. 신유빈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루사일 스포츠아레나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예선 그룹 상위결정전에서 태국의 복병 파라남 오라완과 풀게임 끝에 4-3(9-11, 11-7, 7-11, 11-3, 12-10, 9-11, 11-7) 역전승을 거뒀다. 전남 여자복식과 혼합복식 출전권을 확보했던 신유빈은 개인단식 출전권까지 손에 넣으며 세계선수권대회 전 종목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신유빈은 직전 개인전 대회였던 2021년 휴스턴 세계선수권대회 파이널스 개인단식에서는 64강에 머물렀다. 신유빈은 당시 대회에서 손목 부상을 입으면서 긴 재활을 거쳐야 했다. 신유빈 외에 한국선수들은 여자단식에서는

전지희만이 동반으로 출전권을 우선 확보했다. 전지희는 인도의 고시 스와차카를 꺾었다. 남자단식은 출전권 4장을 따냈다. 임종훈이 인도 선수 사하 마누시를, 장우진이 일본 난적 오이카와 미즈키를 완파했다. 안재현이 대만의 라오썬팅을 꺾었다. 조승민은 홍콩의 람슈항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극적으로 본선에 합류했다. 이로써 한국대표팀은 이번 지역예선에서 현재까지 남자단식 4장, 여자단식 2장, 남녀복식과 혼합복식에서 각 2장씩 출전권을 가져왔다. 남은 남자단식 1장과 여자단식 3장 출전권도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각 그룹 2위 선수들의 추가 순위전이 남아있다. 여자단식 서효원, 최효주, 이시은이 중국 강자들과 만나 각 그룹 2위로 밀린 상황이다. 국제탁구연맹(ITTF)은 각 지역예선이 끝난 뒤 대륙별로 추가 쿼터를 분배한다. 탁구 최강 대륙 아시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출전권이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로 진행될 토너먼트에서 높은 순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 세계개인전탁구선수권대회 파이널스는 오는 5월20일부터 28일까지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다. 1939년 이집트 카이로 대회 이후 84년 만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다.

새해 첫 우승 잡는다...김주형, PGA 소니 오픈 출전



김주형(21)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새해 첫 우승에 도전한다. 김주형은 오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리는 소니 오픈에 출전한다. 지난해 PGA에서 2승을 올리며 세계적인 기량을 보여준 김주형은 지난 주 PGA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 센트리 토너먼트 오

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5위에 오르며 쾌조의 컨디션 자랑했다. 김주형은 이번 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14위에 올라 톱10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김주형은 소니 오픈을 통해 새해 첫 우승을 노린다. 김주형은 대회 전 PGA 공식 홈페이지가 발표하는 ‘파워랭킹’에서도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렸다. 1999년부터 시작된 소니 오픈은 올해 대회를 통해 25회째를 맞이한다. 대회 총상금은 790만 달러이며, 우승상금은 142만2000달러(한화 약 17억9600만원)이다. 김주형과 함께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던 이경훈(32)과 임성재(25)도 첫 우승 사냥에 나선다.

PGA 공식 홈페이지, ‘파워랭킹’ 1위 이경훈·임성재·최경주 등도 출전

임성재는 파워랭킹 6위에 올랐다. 김시우(28), 안병훈(32), 김성현(25) 등도 첫 우승을 노린다. 김시우는 2016년 소니 오픈에 출전해 4위에 오른 경험이 있다. 소니 오픈에서 우승한 유일한 한국인 최경주(53)도 오래간만에 PGA 투어 무대에 출전해 젊은 선수들과 자웅을 겨룬다. 최경주는 2008년 소니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디펜딩 챔피언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함께 지난해 준우승자 러셀 렌디, 조던 스피스, 키건 브래들리(이상 미국) 등도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다. 뉴시스